

# 고용부 지방청 10곳, 노무사 '0명'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소멸 위기"

지방청 노무사 임금, 민간비 60%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원자 없어 김위상 의원 "처우 현실화 필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노무사 채용에 실패한 지청 10곳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서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포항청 ▲구미청 ▲목포청 ▲군산청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다.

특히, 대구지방청·울산지청·양산지청 3곳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용 적이 없었다.

고용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이나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월 기본급은 256만 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무원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급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구아바 등 수입금지 생과실류 집중 단속

검역본부, 내달 15일까지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생과실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과실류 유통 성숙기를 맞아, 수입금지 품목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역 강화에 나선다.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이 목적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량화물(LCL)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89명 및 기획수사팀도 운영한다.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 통보 또는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 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K-종자 육성·수출 활로 모색

16~18일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역대 최대 91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18일 서울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박람회로,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1곳의 국내·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 등을 소개하게 된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

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해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0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상담도 진행한다. 국내

15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지난 8월26일~9월13일 기간에 진행됐고 7만3000달러(9800만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공사(Kotra)와 협력해 발굴한 67명의 신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참가기업 중 12개사는 직접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엔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국립종자원은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작으로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퀵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을,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선정할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소 럼피스킨병, 이달에만 4곳서 양성 판정

농식품부, LSD 확산 방지 총력

소 럼피스킨(LSD) 발병 사례가 또 나왔다. 이달 들어서만 불과 열흘 사이 국내 한우농가 4곳의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양양의 한 한우농장(10두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소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지난 10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달에만 벌써 4번째다. 지난 2일 경기 평택, 3일 강원 양양, 4일 강원 고성에 이어 10일 양양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9번째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LSD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감염 소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소재 소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



지난 9월 20일 럼피스킨 발병이 확인된 충북 충주시 금가면 축사 입구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0월10일 오후 11시부터 10월1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한편, 지난9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이 전북 군산에서 검출됐다. 올가을 전국 가금류 농장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 캠페인 실시

국립공원단, 오늘부터 챌린지 진행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카카오프이엑스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프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

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해 착한탐방 목표를 완료하면 디지털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줍) ▲자연물 사진 찍기 ▲다화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프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기념 배지 모습. /국립공원공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오는 16일부터 2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현 기자 kdh@

## "베트남어로 산재 상담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시범 운영후 확대 검토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 같은 기간 758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근로자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해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된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로 전화해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대현 기자